금주의 법구-〈화엄경〉
인간의 모든 욕망은 허무하며
물거품과 아지랑이 같고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6월 13일)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불교식 대안교육에 어린이 포교 해법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바닥을 찍은 어린이 포교가 최근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학교와 학원에서 제시할 수 없는 '불교식 대안교육'을 부산 · 경남 지역 사찰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다. 지난 6월까지 문화재지킴이 활동 학생을 제외한 순수 법회 참석 아동이 한 명도 없던 상황에서 7월 한 달에만 48명이 등록했다. 비결은 통도사가 새롭게 시작한 '숲 체험 명상 놀이'다.

통도사는 지난 1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숲예술창의력사업단과 '숲 체험 명상 놀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아이들이 찾기 시작했다.

'숲 체험 명상 놀이'는 숲에서 놀며 감각을 깨우고 자연에서 체험한 결과를 미술, 연극, 글짓기 등 예술 활동으로 풀어내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체 놀이를 진행해 다른 이와 하나 되는 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범어사도 어린이법회에 활기를 띠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4월 보제루에서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위해 부산외국어대와 연계해 인도인과 함께 떠나는 인도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영춘권 등 신체 단련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앞으로 범어사 경내에서 숲 체험 및 탐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프로그램 시작 후 2개월 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두 배 이상 늘어나 30여 명이 참가하며, 아울러 저학년은 평균 15명이 참가하고 있다. 저학년 전문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동명대에서 전문 교사를 영입했으며 새롭게 맞춤식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부산 도심에 있는 사찰에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해 합창과 스포츠를 이용해 효과를 얻고 있다.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을 2015년 12월 창단해 이후 50여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후 대원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활동을 확장하고 부산 어린이 포교 성공 사례가 됐다.

아울러 2017년에 4개 사찰이 합심해 처음으로 열린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는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부산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등 어린이 합창단 참여 사찰이 늘어났고 500여 명의 어린이와 200여 명의 자모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 스포츠 포교도 또 다른 포교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 원오사를 비롯해 안국선원 교육관과 불국토청소년도량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미 축구단을 운영 중이며 미타선원, 김해 바라밀선원, 홍법사도 어린이 축구단 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찰들이 보여주는 대안교육 · 문화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찾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4학년 신영록 군의 어머니 허수일 씨는 "아들이 외향적이라 밝은 성격인데 학교 공간에서는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경쟁구도에 놓여 항상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자주 숲을 찾고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 통도사 프로그램을 보고 바로 등록할 정도로 반가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찰들의 포교 프로그램들이 인기몰이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으로 얻은 신뢰'와 '아동 눈높이에 맞춘 행복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불교, 어린이 포교 새 지평

통도사 · 범어사, 전문기관 연계
어린이 법회 운영해 '인기몰이'
부산불교 어린이 합창단 열풍
대안교육 통해 인성 함양 효과
지역 학부모 · 학생 호응도 높아
계층 포교 침체 극복할 롤모델

이수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불교의 공동체 생활과 생명존중 사상은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프로그램에 녹인 전문기관을 찾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과제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면서 "지속성을 위해 전문 담당 스님 혹은 어린이 담당 활동가를 두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미선 (사)동련 사무국장은 "부산 어린이 법회 성장은 무엇보다 문화로 기존 법회의 틀을 깨고 새롭게 접근한 노력의 결과"라며 "높은 교육의 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기존 숲 활동으로론 만족이 어렵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기존 국립공원 활동과 연계해 불교와 접목을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환경과 인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대에 맞는 사찰 환경 여건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서…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단장 박희승)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7월 14~21일 미국 뉴욕과 LA지역의 명상센터 답사를 실시했다. 답사단은 세계 유수의 명상센터를 체험하며, 문경 봉암사 인근에 들어설 문경세계명상마을의 청사진을 그렸다. 사진은 7월 15일 뉴욕 젠마운틴명상센터에서 답사단이 명상하는 모습이다. 사진왼쪽 첫번째 용문사 평정 스님, 두번째 박희승 단장, 사진오른쪽 첫번째 권기섭 문경시 부시장, 두번째 김준태 경북뉴욕주재관이다. **뉴욕 젠마운틴명상센터=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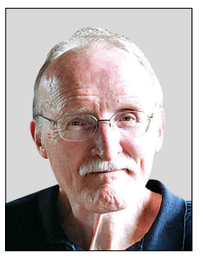
대만 자제공덕회 만해평화대상 수상

만해축전추진위 16일 수상자 발표
실천대상 조병국 홀트병원 명예원장
문예대상 최승범 · 부르스 풀턴 교수
오는 인제서 8월 12일 시상식 개최


증엄 스님


조병국 원장


최승범 교수


부르스 풀턴 교수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 구호기구인 '자제공덕회'가 올해 만해대상 평화대상을 수상한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 · 동국대 대외부총장)는 "'제22회 만해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올해 평화대상은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 구호 · 봉사기구인 '자제공덕회'가 수상하며, 실천대상은 조병국 홀트아동병원 명예원장이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부르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자제공덕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봉사 · 자선 · 의료 ·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다. 현재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자선과 구호활동 중이며, 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활동한 사람만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조병국 원장은 6만 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반세기 넘게 봉사해왔다. 현재 85세의 고령이지만 지금도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아들을 진료하고 있다.

문예대상 공동수상자인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는 1969년 발간한 〈전북문학〉 등을 통해 평생 향토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부르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는 150여 편의 한국소설을 번역해 출간했다. 170여 회에 걸쳐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한국 소설 낭독회를 여는 등 한국 문학을 영미권에 널리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분야에서 전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 · 시상하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 소록도 간호사, 고은 시인,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한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뜻을 기리는 만해축전은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축전에는 유심작품상 시상을 비롯해 만해 74주기 추모행사,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동춘 소장 고려 단차 복원 · 시연 특강 A5 | 시코쿠를 걷다 – ② 순례의 첫 걸음 A8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캠페인
기원정사처럼 성역화불사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보시하기 위해 금화로 땅을 덮었던 수닷타 장자처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땅 한 평을 동전으로 덮어주세요.
당신도 수닷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참 금 : 60만원 (100원 동전으로 땅 한 평을 덮기 위한 금액)
■ 동참문의 : 02-730-6690 / www.buddhism.or.kr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와 총무원 일대의 땅을 매입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재정비하는 대작불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